

2026년 6월 9일(화) 오후 7시 / 성락성결교회 801호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 주식열풍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

- ▶ 주식 시장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  
안경상 부사장 \_ 이퀴녹스프라이빗에쿼티
- ▶ 그리스도인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청지기 정신과 투자 윤리  
장일 목사 \_ <개미목사의 주식투자 첫걸음> 저자
- ▶ 지정토론  
이상민 기윤실 공동대표  
노종문 기윤실 좋은나무 편집주간
- ▶ 토론과 질의응답

- 기윤실 유튜브 채널 온라인 중계
- 참가 신청 : [bit.ly/경제윤리토론회](http://bit.ly/경제윤리토론회)
- 문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794-6200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 [기윤실 토론회]

### 주식 열풍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


- Ⅰ 발간일 2026년 6월 9일
- Ⅰ 발행인 지형은
- Ⅰ 편 집 김현아
- Ⅰ 디자인 윤동혁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http://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http://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정재훈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변호사

## Ⅰ 발제

1. 주식 시장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 5p  
- 안경상 (이퀴녹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
2. 그리스도인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청지기 정신과 투자 윤리 15p  
- 장일 (팔로우교회 목사, 『개미 목사의 주식투자 첫걸음』저자)

## Ⅰ 토론

1. “주식열풍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 토론문 23p  
- 이상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2. 응답: 주식 투자?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것인가 26p  
- 노종문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웹진《좋은나무》편집주간)

## Ⅰ 전체 대화



[발제 1]

## 주식 시장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

안경상

이퀴녹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

### I. 들어가며

한국에서 주가지수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평소 시장을 외면해온 사람들조차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친교실에서, 소그룹에서, 카톡방에서 종목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찝찝함 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정말 정당한가?"*

*"다른 이의 손실 위에 내 이익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 일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예 손을 떼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25분 동안 이 찝찝함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자본시장을 외면하는 것도, 무비판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며,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시장을 떠날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규율된 시장 안에서 분별력 있는 참여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이 제도 개혁 효과로 긍정적인 '게임의룰'이 정착되는 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점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방관자가 될 것인지 참여자가 될 것인지에 따라, 한국 자본주의가 다시 부정적 방향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협력 체계로 자리 잡을 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발제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① 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적·현실주의적 이해, ② 자본시장의 빛과 그림자, ③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 ④ 투자와 투기의 분별 기준, ⑤ 그리스도인의 일곱 가지 실천 원칙입니다.

## II. 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적·현실주의적 이해

### 1. 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는 잘 알려진 가설은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1905)일 것입니다. 베버는 칼뱅의 소명설과 청교도의 금욕적 에토스가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가설은 "자본주의는 본래 기독교적이었다"는 위안의 서사로 즐겨 인용됩니다.

저는 이 가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느 특정한 종교적 에토스가 발명해 낸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존 추구와 부를 향한 욕망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일 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채권 기록, 송나라의 교자(交子) 지폐, 이슬람 세계의 상업 신용,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복식부기 — 자본주의의 모든 요소는 청교도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의 바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청교도의 직업 소명관은 자본주의에 특정한 색채를 입혔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고장 난 인간 본성이 고집스럽게 지향하는 자원 배분 체계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인류는 이 점에 대해 세계의 절단을 대상으로 강력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 — 소련, 동유럽, 북한, 마오쩌둥 시대 중국,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 는 잔혹할 만큼 명확합니다. 자본주의를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극단적 폭력과, 더 큰 죄악, 빈곤을 낳았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의 자본주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의 힘이 강한 자본주의는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을 방향지우는 중력 같은 방향성임을 보여줍니다.

### 2. 자본주의의 부정적 방향성과 뒤집기의 과제

자본주의가 인간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이라는 사실은, 그러나, 결코 자본주의가 가치중립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 — 그 중에서도 탐욕·교만·자기확장 같은 욕망 — 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 방향성이 더 강한 체제입니다. 끝없이 더 높은 수익률, 더 큰 시장가치, 더 많은 자산 축적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자본의 풍경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직시할 때 낭만적 옹호도, 순진한 단죄도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발해야 할 정직한 인식은 이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 욕망의 필연이다. 그러나, 그 욕망의 방향성은 본래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과제는 자본주의의 제거가 아니라 그 부정적 방향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뒤집어내는 것이다.*

자본은 그 자체로 선악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은 그것이 작동하는 구조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분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뒤집기의 시도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현실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규율된 자본주의의 가능성입니다.

### 3. 규율된 자본주의의 조건 — 자발성·공정성·신뢰

자본주의를 자유방임의 상태로 풀어두면, 그 결과는 토머스 홉스(Hobbes)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의 한 구절 —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 21:25) — 의 풍경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제도와 규율이 무너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는 상당한 수준의 규율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규율의 빈틈을 찾아 더 많은 이득을 보려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율이 외부 강제만으로 작동하면 그 사회는 곧 부패하거나 경직됩니다. 좋은 자본주의는 다음 세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 (1) 참여자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게임의 규칙 — 출발선의 격차, 정보의 비대칭, 사후 정산의 불공정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2) 그 규칙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시민적 덕성 — 외부 감시가 없을 때도 규칙을 지키는 내면화된 윤리가 사회 전반에 있어야 합니다.
- (3) 규칙을 어겼을 때 예외 없이 작동하는 책임 시스템 — 권력자와 자본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 4. 이론적 뒷받침 — 아세모글루의 포용적 제도 이론

이 통찰은 그저 윤리적 당위가 아니라 현대 경제학이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한 명제입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자원도 지리도 문화도 아니며, 권력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된 수탈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와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게임의 규칙(Rule of the Game)이 잘 구축되고, 그것이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집행(enforce)될 때, 그리고 시민들이 그 규칙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 자본주의의 부정적 욕망이 사회적 협력과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부정적 방향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뒤집는 유일한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 5. 지금 한국이 바로 그 분기점에 있다

이 통찰을 안고 다시 한국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코스피 8,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 속에서 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 즉 소액주주 권리 강화, 이사회 책임 강화, 배당 정책의 투명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같은 일련의 제도 개혁이 시장의 진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신뢰가 시장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한국에서 비로소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아세모글루가 말한 포용적 제도로의 전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시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배주주에게도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며, 자본의 흐름이 수탈적 구조에서 포용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도출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권장됩니다.

한국사회가 보다 더 포용적 협력 체제로 나아가고, 게임의 룰이 관철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이 분기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시장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전환에 동참하지 못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청지기로 시장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방향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뒤집어내는 실질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6.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 위험을 나누는 사회적 장치

이러한 규율된 자본주의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와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이후 주식회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발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혁명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자본 조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다수의 자본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 유한책임: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원칙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합니다.
- 위험 분산: 다수의 주주가 위험을 나눠 짊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위험 부담 능력을 키웁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반도체도, 백신도, 우주산업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함께 짊어지고, 생산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공동의 장치"입니다. 이것이 자본시장의 원형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주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이 기업의 자본 조달과 무관한 2차 시장에서의 매매라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매일 거래되는 주식 가치 중 신규 자본 조달로 흘러가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이미 발행된 주식이 시세 변동에 따라 손바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사고 있는 이 주식은 어떤 기업의 가치 창출에 동참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는 종이를 사는 것인가?"*

### III. 자본시장의 빛과 그림자 — 네 가지 비판

지금부터 살펴볼 네 가지 비판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철폐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왜 규율되지 않으면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진단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장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진단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1. 카지노 자본주의 (Susan Strange)

영국의 국제정치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Susan Strange)는 1986년 저서 『Casino Capitalism』에서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거대한 카지노"에 비유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자본이 국경을 초월해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실물 경제의 100배가 넘는 금융 거래가 매일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본질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이미 1936년에 같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심사위원이 가장 예쁘다고 평가할 것 같은 얼굴을 고르는 미인대회"에 비유하며, "기업이 투기의 소용돌이 속 거품이 될 때, 자본주의의 일은 잘못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2. $r > g$ — 토마 피케티의 구조적 불평등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21세기 자본』(2013)에서 지난 30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한 줄의 부등식으로 정리했습니다.

$r > g$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높다)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자본을 가진 자의 부는 노동으로 버는 자의 소득보다 빠르게 증식합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면 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자본이득은 곧 어느 곳에선가 노동으로 얻는 소득보다 빠르게 증식하는 구조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누군가의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규율된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누진과세, 부의 재분배, 공교육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 3. 시장의 도덕적 한계 (Michael Sandel)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가지는 것과 시장사회(market society)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영역에 침투할 때, 우정·사랑·공동체·생명·신앙 같은 시장 논리로 환산되어서는 안 될 가치들마저 상품화된다는 것입니다.

샌델의 경고는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무겁습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교회생활·소명의식까지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이 되는가?"가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시장의 논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 4. 돈인가, 하나님인가 (Jacques Ellul)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돈과 권세』에서 "성경에서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 힘, 곧 하나님과 대립하는 맘몬"이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돈이 그 자체로 우상이 되는 힘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엘룰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 결코 중립일 수 없습니다. 돈을 통제하는 결정적 방법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 즉 돈의 축적 논리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통찰은 곧 이어 살펴볼 실천 원칙 ⑦ 정기적 환원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5. 비판을 종합하며

이 네 사람의 비판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자본시장은 (1) 본래 목적인 자본 조달 기능에서 떨어져 투기화되었으며, (2)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확대하며, (3) 모든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시장사회화를 가속화하며, (4)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 되기 쉽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찝찝함의 정체입니다.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정당한 윤리적·신앙적 직관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비판들은 자본시장 자체를 떠나라는 결론이 아니라, 왜 규율과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진단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 둡니다.

#### IV. 시장을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이 비판들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 고 결론짓습니다. 저는 그 결론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자본시장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창을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는 사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본업과 가정과 신앙공동체를 등한히 하면서까지 매매에 몰두하는 사람 — 이런 사람에게는 시장에서 즉시 물러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고, 우리의 국민연금·퇴직연금·교회 적립금 어딘가는 결국 자본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다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더 현실적인 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제도적 전환의 분기점에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있는 참여는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장됩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 있어야 시장의 규칙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고, 시장 안에 있어야 수익의 일부를 공동선의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투자하더라도 무엇이 투자(investment)이고 무엇이 투기(speculation)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 V.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와 투자·투기의 분별 기준

##### 1.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 알아야 할 최소한의 메커니즘

먼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섯 가지로 요약합니다.

- (1) 자본 조달 기능: 기업이 IPO·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모으는 1차 시장이 본래 시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 (2) 유동성 기능: 2차 시장(거래소)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함으로써 1차 시장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합니다.

- (3) 가격 발견 기능: 다수의 참여자가 정보를 반영해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단기 가격은 종종 본질가치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 (4) 위험 배분 기능: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에게 위험이, 안정을 원하는 자에게 안정이 배분됩니다.
- (5) 거버넌스 기능: 주주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소유주의 일부로서 경영을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능 중 (1)(2)(4)(5)는 사회적 선에 기여하지만, (3) 가격 발견은 양면적입니다. 가격 발견은 본질적으로 기대 게임이므로 거품과 패닉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양면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 2. 투자와 투기의 분별 기준 — 세 가지 시험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이 "투자는 철저한 분석 후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투기다"라고 정의한 것은 유명합니다. 저는 이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확장해 세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기준	투자 (Investment)	투기 (Speculation)
① 목적	기업의 생산 활동과 장기 가치 창출에 동참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림
② 수단	합리적 분석·리스크 관리에 기반	정보 비대칭·시장 조작·소문에 의존
③ 영향	공동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타인의 생계·주거·기본권을 잠식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의 자본 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③번 영향 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다루어 주거의 공적 비용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지대 추구(rent-seeking)로서, 청지기적 사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VI. 그리스도인 투자자를 위한 일곱 가지 실천 원칙

지금부터 제시하는 일곱 가지 원칙은 외부 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적 규율입니다. 앞서 살펴본 규율된 자본주의가 사회적 차원의 규율이라면, 이 원칙들은 개인 차원의 규율입니다. 두 차원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자본의 부정적 방향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① 비상금 우선

주식 한 주를 사기 전에, 생활비 6~12개월치의 현금성 자산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이는 위기 시 패닉 매도를 막아주는 심리적·경제적 안전망입니다. 비상금이 없는 투자는 신앙을 흔드는 투자입니다.

## ② 배분

자금의 성격에 따라 예금 (단기 채권형 펀드, MMF/CMA) → 채권 (중기 채권형 펀드, 개인투자용 국채 (비과세)) → 주식 (ETF, 가치주, 배당주) 순으로 배분하십시오. 단기에 써야 할 돈은 절대 주식에 두지 않습니다. 5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자금만 주식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포지션 제한

개별 종목 직접 투자는 총 투자자산의 5~10% 이내로 보수적으로 운영하십시오. 한 종목에 30%, 50%를 거는 것은 이미 투자가 아니라 베팅입니다.

## ④ 차입 금지

신용·미수·CFD 같은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증폭하지만 동시에 손실과 탐욕을 증폭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⑤ 배당주 중심의 장기 가치투자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공동체)와 나누는 가장 가치적인 방식입니다.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무가 건전하고 경영진의 주주 환원 의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 모멘텀 종목보다 배당주가 그리스도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⑥ 분별력 있는 종목 선택

- Negative: 무기, 도박, 담배, 음란물, 노동 착취, 환경 파괴, 약자 수탈형 사업 모델 — 이른바 죄악주(sin stock)는 배제합니다.
- Positive: 공동선에 기여하는 기업, 정직한 회계와 합리적 거버넌스를 가진 기업을 우선합니다.

## ⑦ 체계적 환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수익의 일정 비율(예: 10~30%)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경제사회적 약자와 나누십시오. 이웃 사랑·공익·복음 사역을 위해 환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자본을 축적의 대상에서 청지기적 도구로 바꾸는 결정적 행위입니다. 환원 없는 투자 수익은 그저 또 다른 축적일 뿐입니다.

## 추가 권면 — 인덱스(지수) 투자와 연금의 활용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개별 종목 매매가 아니라 광범위한 지수에 연동된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자신이 죽으면 아내의 자산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90% 두라고 유언했습니다. 인덱스 투자는 (1)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2) 특정 기업에 대한 도덕적 책임 부담을 분산시키며, (3) 주가창을 들여다보지 않게 해줍니다 —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큰 유익입니다.

또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IRP)·ISA 같은 제도적·세제 혜택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세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는 정직한 절세이자 더 많은 환원의 토대가 됩니다.

## VII. 마치며


오늘의 발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며,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그 부정적 방향성을 규율과 분별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뒤집어내는 데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며, 그 욕망의 방향성은 본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잘 구축되고, 그 규칙이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집행되며, 시민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 자본주의의 부정적 욕망은 사회적 협력과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세모글루가 노벨상으로 입증한 포용적 제도의 힘이며,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통과하고 있는 분기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본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자본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사용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결국 사용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자가 탐욕의 도구가 될 것인지 청지기적 사랑의 도구가 될 것인지는 시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시점 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수탈적 구조에서 포용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이 분기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있는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증인이자 동참자가 될 때, 한국의 자본시장은 인간 욕망의 필연 이 공동선의 협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작은 역사를 함께 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스도인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청지기 정신과 투자 윤리

장일

팔로우교회 목사

『개미 목사의 주식투자 첫걸음』 저자

### 1. 서론: 우리 안의 찝찝함

요즘 교인들 사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목사님, 저 요즘 주식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죄책감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들 주식으로 수익 냈다는데 저만 안 하고 있으니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요?"*

코스피 1만 포인트 전망이 쏟아지는 요즘, 이 질문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안에 공존하는 솔직한 마음을 보여준다. 한쪽은 수익을 내고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투자하지 못한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안해한다. 투자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지 않아도 흔들리는 시대다. 단군 이래 최대 불장이라 불리는 주식 시장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찝찝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제 그 속마음을 몇 가지 솔직하게 꺼내놓고 싶다.

- 투자와 투기, 그 경계는 어디인가?
-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혹시 탐욕은 아닐까?
-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치밀어 오르던 분노와 불안. 어쩌면 그것이 내 신앙의 민낯은 아닐까?
-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위 질문들은 투자 찬반에 관한 논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성경은 돈 자체보다 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둔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수익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수익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가?" 이것이 오늘 발제의 핵심 질문이다. 그리스도인의 투자관은 단순한 재테크의 영역을 넘어, 신앙과 삶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다. 앞선 발제에서 주식시장의 원리와 크리스천의 투자 원칙을 다루었다면, 이 시간에는 그 원칙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II. 청지기 정신: 어떤 마음과 원칙으로 투자할 것인가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데 왜 청지기 문제인가?"*

이 반문은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다.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을, 내가 선택한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와 왜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청지기 정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단지 소유권의 확인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돈의 주인인가"를 묻는 것을 넘어,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까지 질문하신다.

달란트 비유(마태복음 25장)를 보아도 주인은 돌아온 후 종들과 결산하였다. 그때 평가의 기준은 달란트의 소유 여부가 아니었다.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가 중요했다. 평가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끊임 없이 점검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다.

그렇다면 투자에서 청지기 정신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 원칙 1. 사전 헌정(Pre-commitment) 원칙

"잘 되면 현금할게요"와 "수익의 10%는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는 전혀 다른 신앙의 자리다. 전자는 조건부 헌신이고, 후자는 청지기의 고백이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매년 초에 이렇게 약정해보길 권한다. '이 투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다.' 그리고 비율은 각자의 형편과 기도 가운데 정해진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 생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시작할 때 이미 결정해두는 것이다. 이 작은 습관이 탐욕과 청지기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준다.

이 원칙의 신학적 근거는 구약의 첫 열매 개념에 있다. 이스라엘은 추수가 끝난 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둔 것의 처음을 먼저 드렸다(신 26:2). 수익이 확정된 뒤 남은 것을 나누는 것과, 수익이 나기 전에 먼저 드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은 같은 금액이라도 전혀 다른 신앙의 언어다. 전자는 내 몫을 먼저 챙긴 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 몫을 먼저 구별해 두는 것이다.

신약은 이 정신을 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발전시킨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권면하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라”고 말한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권면한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숙고하고 결단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울이 가르치는 헌신은 즉흥적인 감동의 산물이 아니라 계획된 순종의 열매였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헌정 원칙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그것은 신약이 가르치는 ‘미리 구별하고, 미리 결단하는 신앙의 습관’을 오늘의 투자 현실 속에 적용한 것에 가깝다.

실천 방법은 단순할수록 좋다. 별도의 현금 계좌를 만들어두고, 주식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약정한 비율을 자동이체로 옮겨두는 것이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구조가 오래간다. 처음부터 10%가 부담스럽다면 3%나 5%로 시작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비율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이 나기 전에 이미 그 돈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정해두는 것이다. 그 결정이 투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닻이 된다.

## 원칙 2. 최소 배제(Minimum Filter) 원칙

그리스도인 투자자에게 가장 자주 제시되는 대안이 ESG 투자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투자의 현실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대안을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으로 삼기 전에 몇 가지 현실적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ESG 평가 기준 자체가 일관되지 않다. 같은 기업이 어떤 평가기관에서는 ESG 우수 기업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내 ESG 펀드 상품들도 편입 종목을 들여다보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아 투자자 스스로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렵다.

둘째,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이 ESG 등급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 없이 보고서와 홍보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표면적으로 친환경·사회책임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변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ESG라는 라벨만 믿고 투자하면, 의도치 않게 ‘착해 보이는 탐욕’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셋째, ESG 투자가 수익률 면에서 항상 유리하지도 않다. 한국 시장에서 ESG 펀드의 장기 수익률은 일반 펀드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착하게 투자하면 수익도 좋다'는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때, 윤리적 투자 자체에 대한 회의로 번지기 쉽다.

그렇다면 ESG를 버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ESG를 만능 해법으로 보지 말고 보조적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되, 더 실천 가능한 원칙은 '최소 배제'다. 도박, 음란, 고리대금, 무기 산업처럼 명백히 사람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기업만큼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완벽한 윤리 심사가 아니라 양심의 최소선을 지키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두 가지 원칙 '사전 선정, 최소 배제'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오늘 당장 내 투자 계좌 앞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청지기 정신의 실천이다.

### III. 투자 윤리: 더 나아가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청지기 정신이 투자자의 내면을 다스리는 원칙이라면, 투자 윤리는 그 원칙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 청지기 정신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투자 윤리는 "어디에, 무엇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투자자가 현실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천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 모델 1. 윤리적 투자조합 — 에티컬 엑스트라마일 1호 (한국)

2020년 4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참여하여 고신대 손봉호 교수의 제안으로 결성된 이 투자조합은 12명의 투자자와 1억 원이라는 작은 규모로 시작됐다. 운용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투자운용사 MYSC(엠와이 소셜컴퍼니)가 맡았다.

에티컬 1호의 투자 기준은 명확하다. 아동 노동 금지, 오염 물질 미사용, 갑질 예방, 노동권 준수 등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설립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하는 ESG 투자와도 맥을 같이한다.

실제 투자 사례는 이 정신을 잘 보여준다. 탈북 여성을 고용하고 남북 화합을 추구하는 간편식 스타트업 '제시키친', 전통예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카데미'가 그 대상이었다.

이 모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1억 원의 작은 펀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엔 유해 영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렀다면, 이제 투자를 통해 기독교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한 사례다.

## 모델 2. 교단 내부 순환 투자 — RCA 교회 성장 기금 (미국)

미국 개혁신교회(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의 교회 성장 기금(CGF, Church Growth Fund)은 1958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까지 60년 이상 RCA 교회를 섬겨왔다. 기금의 뿌리는 18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의 법인 형태는 1958년 총회 결의로 공식 출범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순환'에 있다. 구조는 단순하다.

성도·기관이 저축 증서(이자부 투자 상품) 구매

→ CGF가 이 기금으로 교회에 저금리 대출 제공

→ 교회 대출 이자 수익의 일부를 사역 보조금·장학금으로 환원

2025년 기준 총 자산은 약 7,900만 달러이며, 해당 연도에 총회에 83만 달러의 보조금을 기여했다. 투자자는 시중보다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교회는 저금리 대출로 건물을 짓고, 그 이자가 다시 선교를 돕는다.

이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성도들의 투자 수익 일부가 교회 개척의 씨앗이 되고,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장학금과 선교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새로운 교회 개척 생태계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 모델 3. 글로벌 교회의 자산 방향 전환 — WCC 녹색 투자 선언(교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최근 '녹색 투자 선언(Green Investment Declaration)'에 전 세계 교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오퍼레이션 노아, 저스트 머니 무브먼트, 페이스 인베스트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운동은 교회 재정이 신념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화석 연료(석탄·석유·가스) 관련 기업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둘째, 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저탄소 기술에 재투자한다. 현재 350개 이상의 교단이 이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 운동의 규모를 보면 교회 재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된다. 씨티은행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의 10~15%가 종교 기관과 관련한 재정으로 추정된다. WCC 총무 제리 필레이는 말했다. 자산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 모델 4. 공동체 안의 약자를 돌보는 재정 — 나들목교회 바나바기금(교회)

앞의 세 모델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바나바기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진다. '투자 수익이 공동체 안의 약자에게 흐르고 있는가?'

나들목교회 네트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나바기금의 이름은 사도행전의 바나바에서 왔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밭 앞에 두었다(행 4:36~37).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자신의 잉여 자산을 공동체의 필요 앞에 내려놓은 행위였다.

바나바기금의 취지는 이렇다. 성도들이 자신의 잉여 재산이나 절약한 재정을 공동체 가족과 나누고, 이 기금은 갑작스럽게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 생활비, 장학금, 주택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이 모델이 투자 윤리 논의에 주는 함의는 크다. 투자 수익의 사용처를 공동체 안의 약자와 연결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의 일부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형제의 생활비가 되고,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매의 장학금이 된다면, 그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공동체적 청지기 행위가 된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초대교회 역시 재정의 흐름을 공동체의 필요와 연결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했다고 기록한다(행 2:45). 이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적 실험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재정이 약자를 향해 흐르도록 열어두는 신앙의 실천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기금은 초대교회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투자 수익을 개인의 부 축적에서 끝내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투자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수익이 누구를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 모델 5. 고금리 부채의 악순환을 끊는 대안 금융 — 희년은행(기관)

다섯 번째 모델은 투자 수익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넘어, 내 저축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닿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희년함께가 운영하는 희년은행이 그 사례다.

희년은행의 이름은 레위기 25장의 희년 정신에서 왔다. '이자를 위해 돈을 꾸어주지 말라'(레 25:35). 고금리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를 성경적 원리로 끊어내겠다는 선언이다. 희년함께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로, 부채와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016년 희년은행을 설립했다.

희년은행의 작동 방식은 스웨덴의 협동조합 은행 '야크(JAK Members Bank)'를 한국형으로 변형한 것이다. 핵심은 '무이자 저축, 무이자 대출'이다. 조합원이 저축하면 그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 권리가 쌓이고, 목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다. 기부가 아니라 저축이기 때문에 참여 문턱이 낮다. 조합원이 되면 재무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만나 상환 계획도 함께 세운다.

희년은행이 집중하는 영역은 고금리 전환 대출, 청년 주거 지원 대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출이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빚을 무이자 대출로 바꿔주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투자자에게 희년은행 참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기부나 후원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유 자금을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곳에 맡기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금리와 채무의 악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것은 수익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수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다. 얼마를 벌었는가만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가까지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인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모델은 규모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된 방향은 하나다. 투자를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델들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독교 기관에서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일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 역시 소명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일 수도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에티컬 1호나 희년은행 같은 대안적 기관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며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의 일부를 희년은행이나 바나바기금 같은 사역에 흘려보내는 것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실천이다.

따라서 직접 참여와 간접 기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옳은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투자 방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내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얻은 수익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형편과 은사, 그리고 부르심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특정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의 행위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 IV. 결론: 그리스도인 투자자의 얼굴

오늘 발제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것이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의 문제다.


그리스도인 투자자에게는 두 겹의 자유가 있다. 첫 번째는 청지기의 자유다. 수익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손실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자유. 내 재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오는 역설적인 자유다.

두 번째는 윤리적 상상력의 자유다. 시장이 제시하는 수익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또 다른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유다. 에티컬 1호나 희년은행에 직접 참여하든, 일반 시장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바나바기금이나 대안 기관으로 흘려보내든, 그 방식은 각자의 형편과 은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야기가 완성된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청지기 정신과 투자 윤리는 여전히 탐구하고 실천해야 할 영역이 많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삶으로 답해가야 할 과제다. 오늘 포럼이 그 대화의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코스피가 2,000이든 10,000이든, 내 신앙은 그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담대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주식 시장은 더 이상 탐욕의 공간도 두려움의 공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청지기 현장이 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투자 열풍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증언일 것이다. 

## “주식열풍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 토론문

이상민

법무법인에셀 대표변호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안경상 부사장님의 발제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있는 한국 자본시장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일 목사님은 발제문을 통해 투자에서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2가지 원칙으로 사전 헌정 원칙과 최소 배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두 분의 통찰력 있는 발제문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가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몇 가지 생각과 질문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 [1] 발제문 “주식 시장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에 관해

1. “자본주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안 부사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들어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의 실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인간관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무지가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안 부사장님의 지적처럼 한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8,000에 이르게 된 것에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코스피 급상승의 직접적인 이유는 제도 개선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실적 및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요.
3. 안 부사장님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3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자본 활용에 대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부사장님은 그 기준 중 ‘영향’에 관하여, ‘공동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투자이고, 타인의 생계, 주거, 기본권을 잠식하면 투기’라고 분류하고, ‘거주용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다루어 주거의 공적 비용을 끌어 올리는 행위는 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달리 주식의 경우에는 ‘영향’이라는 기준에 따라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투자자를 위한 일곱 가지 실천 원칙’ 중 ‘분별력 있

는 종목 선택' 항목에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사례로 '죄악주'(sin stock)가 열거되어 있는데, '죄악주'를 '타인의 생계, 주거, 기본권을 잠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신 스톡 투자'는 모두 투기가 되는 것일까요.

4. 최근 K 방산이 많이 언급되는데, 무기를 생산하는 주식은 신 스톡으로 분류됩니다. 죄악주 배제의 기준에 따르면 K 방산업체 주식은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무기 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현대로템의 경우 최근 폴란드에 K2전차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 회사는 고속철도, 전동차 등도 제작합니다. 이와 같은 회사도 죄악주이므로 주식 투자에서 아예 배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5. 안 부사장님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경제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체계적 환원을 그리스도인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체계적 환원은 자본을 청지기적 도구로 바꾸는 결정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의 체계적 환원 시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현실화한 경우에는 언제나 환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식투자는 은행 예금과 달라서 투자를 아예 그만 두지 않는 한 언젠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현실화하면 일단 그 시점에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환원해야 하는 것일까요.
6. 안 부사장님의 지적처럼 규율된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본주의의 부정적 방향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뒤집어내야 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포용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분별력 있는 청지기로 자본 시장에 참여한다면 자본주의의 긍정적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전닉스의 급상승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사연이 넘쳐나지만, 주식투자에 쓸 여유돈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부정적 방향성을 그 본질로 갖고 있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분별 있는 자본시장 참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악마의 제도가 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을 최대한 같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구렁이에 빠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가 더욱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2] 발제문 “그리스도인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청지기 정신과 투자 윤리”에 관해

1. 장 목사님이 제시한 '사전 헌정 원칙'은 안 부사장님의 체계적 환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 다. 위에서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투자로 인해 향후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현실화한 경우에는 일단 그 시점에서 사전 헌정 원칙에 따라 나눔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최소 배제 원칙'에 관해서는 위에서 적은 K 방산업체 투자와 관련한 의문이 있습니다.
  3. 투자 윤리 선택지 중 모델 1 윤리적 투자조합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윤실은 2020년 에티컬 엑스트라마일 1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 이후 2호 결성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윤리적 투자조합은 처음 시작할 때 투자수익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점이 2호 결성에 실패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 WCC 녹색 투자 선언에 관한 소개에 의하면, 미국 교회 등에서는 교회 기타 종교 기관이 주식 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가 여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금은 정기예금 등 안전 자산에만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5. 기윤실에서도 2017년경부터 희년은행과 비슷하게 청년부채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환대출, 재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운동입니다. 교회와 기관의 후원금이 그 운동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기윤실에서는 현재도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WINGS에서 청년들에게 일대일 재무상담(소득 및 지출파악, 채무상환 및 저축계획, 소비예산 수립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활황으로 인한 명암이 짙은 현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재무상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응답: 주식 투자?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것인가

노종문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웹진《좋은나무》편집주간

안경상 선생님과 장일 목사님의 발제문을 오늘 모임에 앞서 먼저 읽으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다시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안경상 선생님의 발제 중에서 개인적으로 특히 유익했던 부분은, 자본주의의 본질, 규율된 자본주의 개념과 그 조건, 자본 시장과 주식회사 제도의 순기능 등을 요약하고 또한 현대 자본 시장의 그림자를 날카롭게 지적한 네 사상가를 소개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투자를 위한 일곱 가지 실천 원칙 등을 제시하셔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 행동 규칙을 제시해 주신 부분도 눈길이 갔습니다.

장일 목사님의 발제는 우선 청지기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돈과 투자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사전 헌정과 최소 배제 원칙을 제시해 주신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 윤리를 다루는 III부에서는 주식 투자의 영역을 더 확장하여 자본 시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요 사례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의 논의가 너무 좁은 영역에 갇히지 않도록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두 분의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거나 궁금했던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 추가로 여쭙어보고 싶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이후에 이어질 토론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 보고자 합니다.

### 1. “찝찝함”

두 분의 발제를 보면, 공교롭지만 두 분 모두가 서두에 “찝찝함”을 말씀하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경상 선생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찝찝함이 있다”고 하셨고, 장일 목사님은 “우리 안의 찝찝함”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여셨습니다.

이런 일치는 무언가를 보여 줍니다. 즉,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주식 열풍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무언가를 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찝찝함이란 아마도 행위가 인식을 앞질러 가고 있을 때, 양심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How)보다 먼저 ‘무엇’(What)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 2. “살아내야 할 현실” - 자본주의 이해

안경상 선생님은 “자본주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명확히 짚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거의 같은 말처럼 사용되지만, 이 둘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시장경제(반대말은 계획경제)는 가격과 수요·공급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교환의 시스템’이라면, 자본주의(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이윤 극대화과 자본의 무한 증식을 목표로 추구하는 ‘지배적 이념’입니다. 학자들은 자본주의의 5대 기본 전제를, 사유 재산 보장, 이윤 동기, 노동의 상품화, 자유 경쟁, 무한 성장으로 요약합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구분하고 나면, 자본주의의 핵심 전제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비평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당연히 여기는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지만, 성경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 레 19:18)고 하며, 자본주의는 무한한 부의 축적을 합리적인 것이라 여기지만, 예수님은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재산을 쌓아 두겠다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경고하십니다(눅 12:13-21).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비평은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들은 모두 어느 정도 용인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하거나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물론 반대 개념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윤리 기준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눈부신 물질적 풍요를 선사했으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여 인간 소외와 관계 단절의 문화를 만들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경제 체제에 깊이 스며든 강력한 역동인 자본주의를 당연히 여기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으며, 그 이상적 역동을 감시하고 제어해야만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본주의가 변하지 못할 절대 조건이라는 상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라야 안경상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규율된 자본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선생님이 제시하신 “규율된 자본주의”의 세 조건인 “공정한 게임의 규칙, 자발적 시민 덕성, 예외 없는 책임 시스템”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최대한 공적인 유익에 복종하도록 끌어가려는 현실적 제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상대적으로 권장되는 자본 시장 참여” -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

안 선생님은 한국 사회의 자본 시장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권장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방향성을 긍정적 방향성으

로 뒤집어 내는” 흐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개인에게 ‘자본 시장 참여’란 아마도 주식 시장 참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로 진입하는 주식 시장은 기업이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는 1차 시장(IPO,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이 아니라, 2차 시장 즉, 이미 발행된 주식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유통 시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2차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거래는 단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만들어내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주식 투자 본래의 긍정적 취지인 ‘기업의 가치 창출에 자본을 대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것’과는 거리가 멍니다. 내가 비싸게 판 주식은 그것을 산 사람이 더 비싸게 팔지 못하면 그 사람의 손실이 되며 이러한 주식 매매 과정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단순히 이전되며, 한쪽이 수익을 보면 다른 쪽은 손실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안 선생님은 배당주 중심의 장기 가치 투자, 인덱스 투자, 차입 금지 등의 원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정확히 2차 시장의 제로섬 게임에서 빠져나와, 주식 투자의 원래 긍정적 취지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안 선생님이 던지신 질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 있는 이 주식은 어떤 기업의 가치 창출에 동참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는 종이를 사는 것인가?”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이 질문의 의미를 숙고하고 정직하게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투자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 빛, 이자, 토지, mammon, 소유, 투자, 구제

두 분의 발제에서 아마도 시간 관계상 생략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도 이후의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구약성경은 현실 경제 체제(토지, 금융, 노동 등)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명령들을 제시합니다.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안식년(신 15:1-2), 50년 마다 토지를 모든 가족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초기 상태로 되돌려 토지의 영구적 소유를 금지하는 희년(레 25:10), 가난한 이웃의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이자를 금지하는 법(출 22:25; 레 25:35-37), 곡식이나 과일을 거둘 때 일부를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법(레 19:9-10; 신 24:19),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추와 저울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법(레 19:35-36; 신 25:13-15), 품꾼의 샹을 당일 해지기 전에 지급하게 하여 각 가정의 생계를 보호하는 법(레 19:13; 신 24:14-15) 등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am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돈을 단지 중립적인 도구로 보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선택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중립적 도구 이상의 우상적 힘으로 보셨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이자 시스템 안에서 돈은 다른 모든 실물 재화와는 더욱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돈은 썩지 않고, 닳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해 두면 이자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무한히 증식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도 이제 더 이상 공간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축적이 가능하고 가만히 내버

려 두어도 스스로 증식합니다. 맘몬의 힘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강력하게 변했고, 금융 이자가 노동 생산성보다 항상 크게 만들어(피케티)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자와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구약성경의 명령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기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꾸어 주는 대상도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로 확장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눅 6:34-35).

넷째, 달란트 비유(마 25:14-30)에서 예수님은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신실한 제자도에 관한 종말론적 가르침이며 직접적으로 돈이나 투자에 대한 가르침은 아닙니다만,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은 돈을 축적해 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 돈을 불러 칭찬을 받았고, 한 달란트를 땅에 안전하게 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능동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실함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맡겨진 자본을 두려움 없이 활용해 증식하는 종을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은 현실 경제에서 생산적인 자본 운용을 긍정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이자는 금지하셨겠지만(아마도 구약 율법에 따라) 생산적 자본 운용, 즉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한 투자는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칭찬의 초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신실함과 모험의 감행’이라는 점, 또 여기서 게으른 종에게 ‘차라리 이자라도 받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자 받는 것을 권장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돈의 활용에서 ‘능동적인 생산적 운용’ > ‘수동적인 이자 받기’ > ‘안전한 보관’이라는 가치의 순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인 구제(마 6:20; 눅 16:9; 마 19:21; 눅 12:33), 값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환대(눅 14:13-14), 필요한 자에게 너그럽게 꾸어 주기(마 5:42; 눅 6:35), 값을 수 없는 빛을 탕감해 주기(마 18:23-35) 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돈과 돈을 버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보여 줍니다. 부유한 제자는 자신에게 맡기신 돈을 잘 관리하면서 이웃의 이익을 위해 흘려보내며 돈의 ‘사회적 효용’<sup>1)</sup>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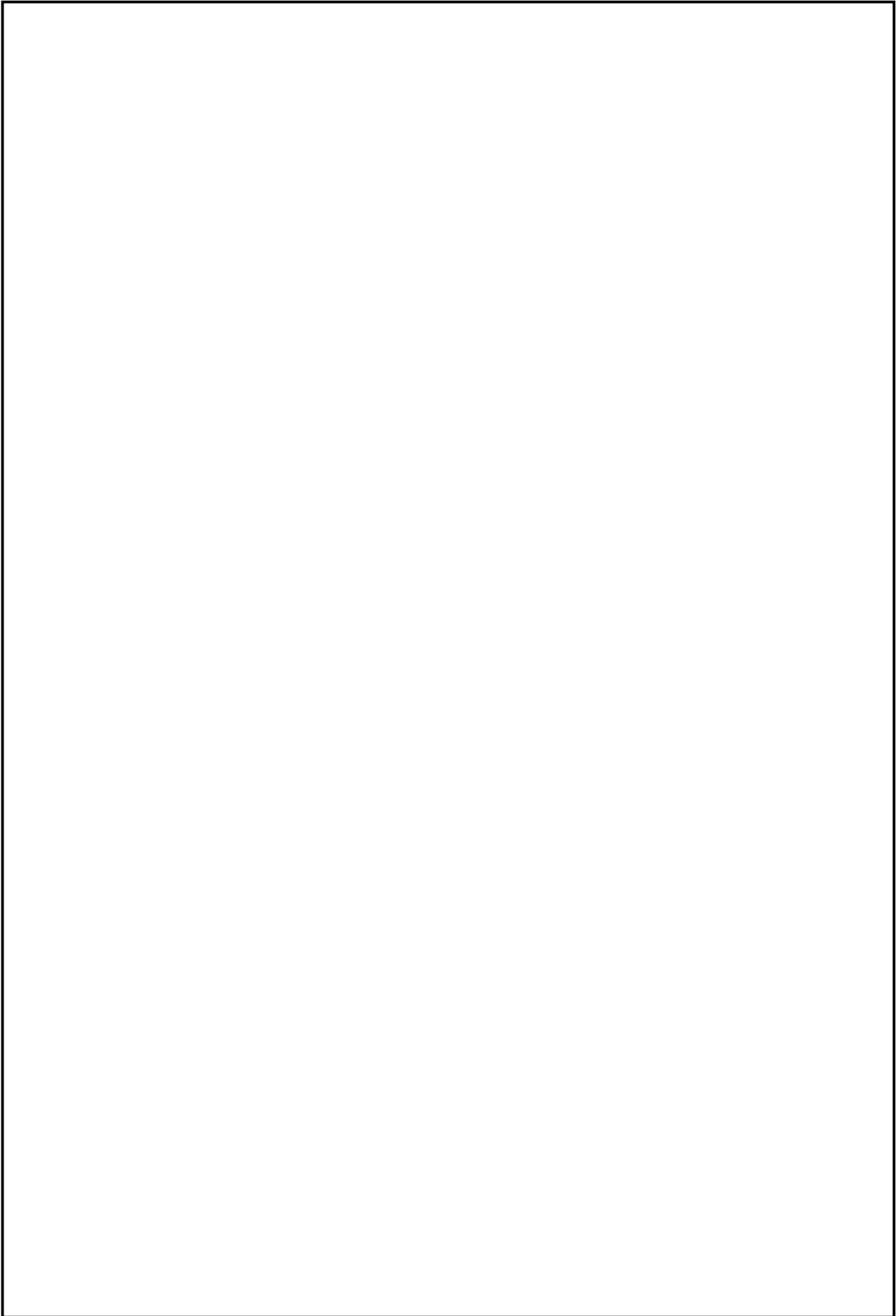
## 5.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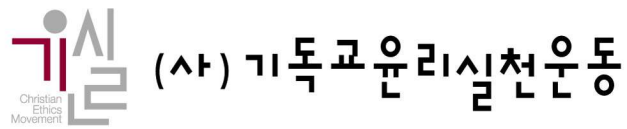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발제자에게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안경상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본 시장에 참여한 다음 어떻게 자본 시장을 규율하거나 개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지, 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자본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명제에는 아마도 두 분 모두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본 시장에 직업적 전문가로 참여하거나, 개인으로서

1)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돈의 사회적 효용 극대화는 한계효용이 낮은 자(부자)의 자본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자(빈곤층)에게 순환시킴으로써, 화폐의 유통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후생(Total Social Welfare)과 신뢰 자본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전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본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본 시장을 긍정적으로 개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장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장일 목사님이 III부에서 제시하신 다섯 가지 대안적 투자의 사례들을 보면, 투자의 정의가 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좁은 정의는 안경상 선생님 발제에 나온 벤자민 그레이이엄의 정의로서 “철저한 분석 후 원금의 안전과 적정한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인데, 이 정의는 자금을 운용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투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일 목사님이 수집하신 사례들 중 어떤 것은 과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기부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www.cemk.org](http://www.cemk.org)